

#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6월 소식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35도를 오르내리는 중앙아시아 여름의 정점인 뜨거운 날들 속에 40명의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로 모여 율동과 반별활동, 암송과 공부, 게임과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5년만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이루어진 한주일간의 프로그램이라서 리더들 모두에게 긴장과 설렘이 컸습니다. 마치고 나서 헤어짐의 아쉬움과 잘 치러낸 프로그램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간증으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 1. 현지 공동체

올여름에는 5년만에 일주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10명 내외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른 교회나, 연합 교회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보내어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동안 10여명되는 중고등 학생들의 모임이 잘 이어져 오고, 이들의 믿음과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담임목사의 사모인 '디아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여러번 경험해 본 이웃교회의 교사 2명도 함께 합류하여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20여명, 그리고 20여명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모두 4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반별 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까지 담당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운영은 '디아나'사모를 통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지만, 교사로 섬긴 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곳 키르기즈에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였고, 이들의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 중고등학생들이 되어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이들이 청년리더들, 성인이 되어서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키르기즈의 다음세대 교회를 이어갈 수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드림 아카데미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한국어능력시험에 8명의 학생들이 응시했습니다. 예년에는 50~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았었는데, 올해에는 신청자들이 많았고, 주관하는 비취책 한국교육원에서 단체로는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아서 학생들이 등록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11학년(이곳은 초중고가 11년제임)을 마치는 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남쪽에 있는 제2의 도시 '오쉬'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과 또 한 명의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합격이 되어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도 사고, 저희 드림아카데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이후에는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등이 있어서 다양한 한국어 문화 환경에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로 수업을 고려회관의 강의실에서 받았던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어 환경을 접하면서 함께 준비해서 노래와 극도 발표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7월 말에는 한국어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캠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비 정기적인 모임과 캠프를 통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학생들의 기대가 큼니다. 다시 가을학기에는 초급반 아이들도 새로이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 가을부터는 교사들을 몇 명 더 총원하여 다양한 반별,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있는 한국어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소망의 집'은 현지 사역자 알렉산더 목사와 함께 노숙자들의 거처를 만들어주고, 이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알콜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2년전에 시작된 사역입니다. 비쉬켄 약차브르스키 구청장의 요청으로 2017년 11월부터 김옥열 목사님(장인)께서 지붕을 수리해주고 기거할 수 있도록 침대와 보일러 시설을 마련해 준 것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창고 건물이었던 세칸짜리 폐허와 같은 공간이 첫 두칸은 남녀 노숙인들이 분리해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거처가 있기 때문에 노숙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여전히 이들이 아직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명은 직업을 찾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낮에는 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져 빈병과 페트병, 그리고 박스를 모아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여 지내는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10여명분의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미 35명 정도 되는 이들의 먹을 것을 전체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알렉산드르 목사가 리더들을 데리고 오거나, 교회의 그룹모임에 참석시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이들이 이 장소에서 스스로 모아서 준비한 기름 볶음밥을 30명분을 만들어 아직 거처도 없는 길거리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1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황이 된다면, 이들에게 용접이나 목공일을 가르쳐서 일반 사회로 돌아가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며 안정된 이들의 별도 거처를 위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년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스스로 이름을 붙인 소망의 집에 맞게 이들에게 신앙과 더불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알콜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10여명의 사람들도 발전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개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숙식이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돕고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약 주석번역 사역

지난해 말부터 출판을 해주던 큰 인쇄소의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제적인 번역과 편집의 모든 과정을 저희 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출판은 이곳에 인가된 연합신학교의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 주던 인쇄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새로운 인쇄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2권의 책의 출간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동안 편집작업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